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2/12/31

한국인이 보는 2013년 (세계 54개국 비교 조사)

숨가쁘게 달려온 2012년을 마무리할 시기,
이제는 2013년의 새로움을 기대하며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2013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갤럽은 지난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2013년의 국가 경제, 살림살이’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2013년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갤럽국제조사기구(Gallup International Association)에 가입된 54개국의 조사기관이
55,8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일한 조사 결과(End of Year Poll)를 토대로 세계인과 한국인의
2013년 전망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사 개요

1. 조사대상: 전국(제주도 제외) 만 19세 이상 남녀
2. 표본크기: 1,500명
3. 조사방법: 개별 면접 조사(조사원이 직접 대면 인터뷰)
4. 조사기간: 2012년 11월 15~30일(16일간)
5. 표본추출: 2단 층화 집락 추출법
6. 표본오차: $\pm 2.5\%$ 포인트(95% 신뢰수준)
7.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문의 한국갤럽 연구 5 본부 민슬기 연구원 02-3702-2523 skmin@gallup.co.kr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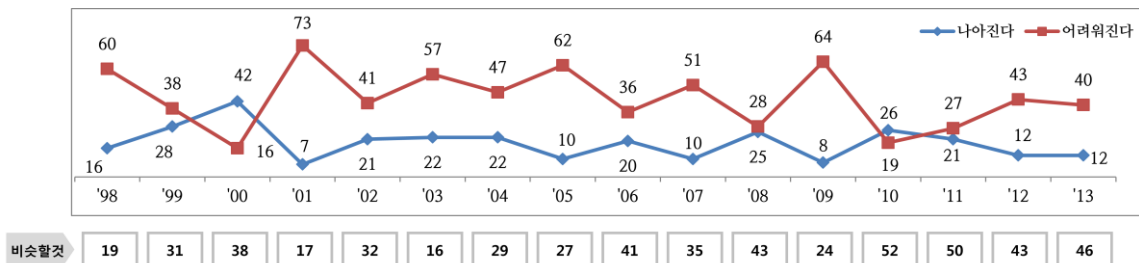
- ✓ 2013년 한국경제, ‘나아질 것’ 12%…… 상승하던 비관론은 주춤
- ✓ 세계 경제는 ‘나아질 것’ 35%로 낙관론 우세…… 유럽은 여전히 비관적 전망
- ✓ 가구 살림살이 전망은 2012년과 비슷, 50대 가장 부정적 전망
- ✓ 국내 실업자 전망은 ‘감소할 것’ 10%, ‘증가할 것’ 48%지만 작년보다는 긍정적으로 변화

2013년 한국경제, '나아질 것' 12%…… 상승하던 비관론은 주춤

2013년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은 여전히 높았지만, 작년에 비해 비관-낙관 격차는 다소 줄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결과,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40%,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12%, '비슷할 것'이라는 관망층이 46%로 응답됐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응답은 12%로 동일했지만, 2011년부터 상승하던 비관론이 3%포인트 가량 낮아졌다.

▶ 한국인의 경기 전망 추이 (%)



(질문) 귀하께서는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경제는 '나아질 것' 35%로 낙관론 우세…… 유럽은 여전히 비관적 전망

전 세계 54개국의 2013년 경제 전망 평균은 '나아질 것'이 35%, '어려워질 것'이 28%, '비슷할 것'이 29%로 낙관론이 우세했다. 이는 2012년 전망 세계 평균('나아질 것' 30%, '어려워질 것' 34%)에 비해 긍정적인 시각이 증가한 것이다.

▶ 2013년 국가 경제 전망 - 세계 평균

나아질 것	어려워질 것	비슷할 것
35%	28%	29%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낙관론이 우세한 나라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브라질 등이었고, 비관론이 우세한 나라는 포르투갈, 레바논, 프랑스 등이었다.

낙관적 국가 10위 내 순위를 대륙별로 살펴보면 유럽(조지아), 아시아(아제르바이잔, 중국, 인도), 남미(브라질, 페루), 아프리카(모잠비크, 케냐, 카메룬), 중동(사우디 아라비아)으로 유럽 국가는 하나밖에 없었다. 반면 비관적 국가 11위 내 순위에서는 2위 레바논(중동)을 제외한 10개국이 모두 유럽 국가로 여전히 비관적 경제 전망이 다수를 차지했다.

낙관론과 비관론의 응답 차이로 계산한 순위에서 전체 54개국 중 1위는 조지아(+63%포인트), 2위는 아제르바이잔(+56%포인트), 3위는 브라질(+45%포인트) 등의 순서였고, 세계 평균은 +7%포인트였다. 한국은 전체 33위(-28%포인트)로 상대적으로 비관론이 우세한 국가에 속했다.

▶ 2013년 국가 경제 전망 - 낙관적 Top 10

순위	국가명	나아질 것 (%)	어려워질 것 (%)
1위	조지아	69	6
2위	아제르바이잔	58	2
3위	브라질	57	12
4위	모잠비크	56	14
5위	중국	50	19
6위	사우디아라비아	47	21
7위	케냐	45	39
8위	인도	44	17
9위	카메룬	43	28
10위	페루	42	11
...	...	...	...
35위	한국	12	40
...	...	...	...

▶ 2013년 국가 경제 전망 - 비관적 Top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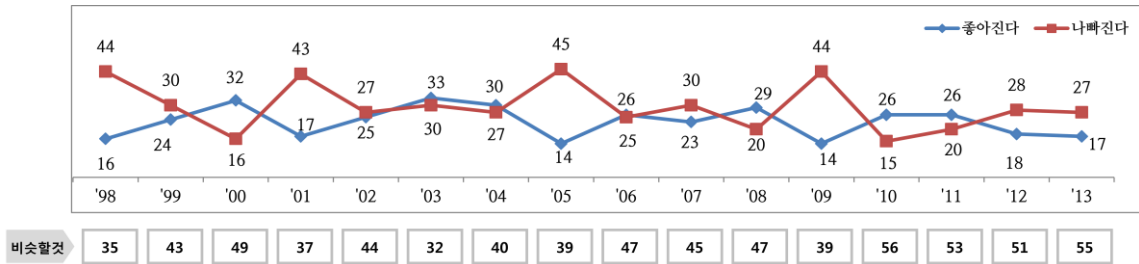
순위	국가명	나아질 것 (%)	어려워질 것 (%)
1위	포르투갈	2	87
2위	레바논	11	77
3위	프랑스	3	70
4위	벨기에	5	68
5위	스페인	7	66
6위	보스니아	8	61
7위	아일랜드	9	60
8위	세르비아	12	53
9위	핀란드	17	52
9위	독일	7	52
9위	폴란드	6	52
...	...	...	...
21위	한국	12	40
...	...	...	...

가구 살림살이 전망은 2012 년과 비슷, 50 대 가장 부정적 전망

한국인의 가구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은 2012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좋아질 것’이 17%, ‘나빠질 것’이 27%, ‘비슷할 것’이 55%로 낙관론과 비관론이 뒤집힌 2011년 이후 격차가 계속 유지됐다.

연령대로 보면, 젊은 층일수록 낙관론이 더 높았다. 19~29세에서는 ‘좋아질 것’ 22%, ‘나빠질 것’ 21%로, 30대에서는 ‘좋아질 것’이 23%, ‘나빠질 것’이 22%로 응답되며 비관론보다 낙관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50대에서는 ‘좋아질 것’(11%)으로 전망하는 사람보다 ‘나빠질 것’(38%)이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27%포인트나 많아 내년 살림살이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었다.

▶ 한국인의 살림살이 전망 추이 (%)



(질문) 귀댁의 살림살이가 2013 년인 내년에 올해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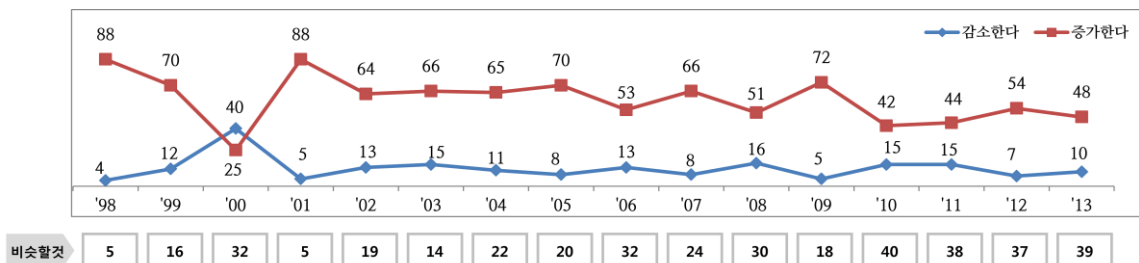
▶ 2013년 살림살이 전망 - 연령별 (%)

구분	좋아질 것(a)	나빠질 것(b)	비슷할 것	(a)-(b)
전 체	17	27	55	-10%포인트
연 령 별				
19 ~ 29세	22	21	54	+1%포인트
30 대	23	22	53	+1%포인트
40 대	17	28	55	-11%포인트
50 대	11	38	50	-27%포인트
60세 이상	11	25	61	-14%포인트

국내 실업자 전망은 '감소할 것' 10%, '증가할 것' 48%지만 작년보다는 긍정적으로 변화

국내 실업자 전망은 2012년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감소한다'가 10%, '증가한다'가 48%, '비슷할 것'이 39%로 응답됐다. 작년에 비해 긍정적 전망은 3%포인트 상승, 부정적 전망은 6%포인트 하락해, 작년보다는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 한국인의 실업자 전망 추이 (%)



(질문) 귀하께서는 내년에 우리나라 실업자가 올해보다 얼마나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nd of Year Poll 이란?

1980 년 이후 한국갤럽이 갤럽국제조사기구 (Gallup International Association) 회원국과 공동으로 매년 진행하는 경제, 노동, 국제 관계에 대한 전 세계인 인식 조사입니다.

올해는 11 월에 총 54 개국에서 55,817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갤럽은 'End of Year Poll'을 통해 한국 사회 및 국제 사회에서 국민의 살림살이, 경제 심리, 실업자 인식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해 내년의 예측 지수 산출을 돕고 있습니다.